

고려 본궐 만월대 주요전각 위치와 배치체계

Layout Characteristics and Re-examination of Location of Major Buildings in the Goryeo Bongwol

남 창 근

(사)남북역사학자협의회 연구위원

I. 머리말

II. 고려 본궐의 영역구성과 유구현황

1. 고려 본궐의 영역변화와 권역
2. 건물지 현황과 운영시기
3. 지형과 축대 현황

III. 고려 본궐 주요 전각 위치 재검토

1. 서부건축군 주요 전각 위치에 대한 선행연구
2. 고려 본궐 주요 전각 위치 재검토

IV. 고려 본궐 배치체계와 동선체계

1. 배치체계
2. 동선체계

V. 맺음말

국문 요약

본 연구에서는 최근 시행된 만월대(고려 본궐) 서부건축군의 발굴조사와 선행연구를 토대로 고려 황궁의 배치체계와 주요 전각의 위치를 살펴보았다. 북한 개성시에 위치한 만월대는 고려의 황제와 왕조를 상징하는 황궁터이다. 만월대는 전쟁, 내전, 화재 등 잦은 재난에도 불구하고, 강화천도를 제외한 919년부터 1392년까지 470여 년 동안 고려의 본궐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였다. 남북한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공동으로 만월대에 대한 8차에 걸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중심건축군 일부를 비롯한 서부건축군 건물지와 배치를 확인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고려 본궐 제2정전인 건덕전의 위치는 정전이 갖는 위상과 지형조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서부건축군의 가장 남쪽에 위치한 A건물지로 판단되며, 그 북쪽으로 편전 일곽과 침전 일곽이 지형에 순응하며 자리잡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금원과 인접한 곳에는 왕실원묘인 경령전을 비롯해 궁궐내 사찰인 내제석원 등이 위치할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기존에 임천각터로 알려진 T건물지는 선정전 일 가능성이 있으며, 임천각은 회경전 서쪽 U건물지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고려 본궐 만월대는 지형에 순응하면서도 동시에 황궁으로서의 권위와 격식에 맞는 합리적인 배치체계를 구현하였다. 정전-편전-침전으로 그 권역이 구분되어 있는 중심건축군과 서부건축군은 남북방향과 동서방향으로 연결되는 유기적인 동선체계를 통해 두 영역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중심건축군과 서부건축군 사이에는 두 영역의 서비스공간이자 완충공간으로 보이는 부속전각들이 배치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전-편전-침전영역으로 구성된 삼전체제의 2원 구성은 고려 본궐만의 배치특성으로 동아시아 궁궐건축에서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운 독특한 고려만의 궁궐건축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는 고려 본궐이 초창부터 최성기까지 약 100여년에 걸친 점진적 조영 과정과 창건당시의 궁궐영역인 서부건축군 배치질서의 존중, 주어진 대지 조건에 순응한 노력의 결과로 판단된다.

주제어 : 고려 본궐, 서부건축군, 배치체계, 삼전의 2중 구성, 건덕전

I. 머리말

고려 본궐 만월대는 북한 개성시 송악산 남쪽 기슭에 위치한 고려시대 황궁터이다. 태조 왕건이 919년 송악으로 천도한 이래 수많은 변화(전란, 내란, 화재 등)를 거치면서도 강화천도 시기를 제외한 470여 년간 고려의 본궐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하였다.¹⁾

고려 본궐은 황궁으로서의 권위와 위계를 드러낼 수 있도록 그 격식에 맞는 제도와 규범에 따라 조영되었는데, 송악산 남쪽 구릉경사면에 지형·지세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결과 동아시아에서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운 독특한 궁궐로 완성되었다.

그간 고려 본궐에 대한 연구는 역사학, 고고학, 건축학 등의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연구성과를 이루었으며, 서부건축군에 대한 남북공동발굴조사도 진행되어 수십동에 달하는 건물지와 관련 유물이 출토되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고려사(高麗史)』 등의 사료에서 확인되는 수많은 전각명과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건물지를 일치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려 본궐 주요 전각 중 정확한 위치가 파악된 건물지는 회경전을 비롯한 중심건축군 건물지와 서부건축군의 경령전터 등 10여동에 불과하다.²⁾ 세자가 머물던 동부건축군(수춘궁 일곽)과 구정 등의 미발굴지역은 주요 전각의 대략적인 영역만 추정할 뿐 정확한 위치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고려 본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2개소의 정전(正殿) 운영과 이에 따른 배치체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심도 깊은 연구가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발굴조사 자료와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고려 본궐 주요 전각의 위치를 재검토하고, 더불어 고려 본궐의 배치체계와 특성을 파악해 보았다. 연구의 과정은 최대한 객관적인 고고학적 자료와 선행 조사자료를 수집하고 종합한 후 사료(史料)에 기록된 내용과 비교분석하여 주요 전각의 위치를 비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배치체계를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기 조사된 고고학적 조사자료(발굴

1) 고려 본궐의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 태조 2년(919) 송악으로 천도, 현종 2년(1011) 거란침입으로 소실, 현종 연간(1011~1023) 1차와 2차에 걸친 대규모 중수, 1123년 송나라 사신 서궁이 다녀감(『고려도경』 제작), 고려인종 4년(1126) 이자겸의 난으로 소실, 인종 10년(1132) 중건, 인종 16년(1138) 궁궐 중수 및 전각명 변경, 명종 원년(1171) 화재로 소실, 명종 9년(1179) 중건, 고종 12년(1225) 화재로 소실, 고종 19년(1232) 강화천도, 원종 11년(1270) 중건, 공민왕 11년(1362) 흥건적의 난으로 완전히 소실됨.
2) 전각 위치와 명칭이 일치되는 건물지로는 『고려도경』에 언급된 중심건축군의 신봉문, 창함문, 회경전문을 비롯해 회경전, 장화전, 원덕전 등의 건물지와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서부건축군의 경령전터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건물지들은 현종 연간(1011~1023) 대규모 궁궐 중수공사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면 등)와 고증자료를 종합하여 「고려 본궤 종합배치 추정도」를 재작하였으며, 이를 분석틀로 활용하였다. 배치도는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법으로 작도하였다(도 1).³⁾

① 중심건축군은 북한자료 「만월대 배치도」와 고유섭(1964)의 「만월대 실측도」를 재작도하였으며, 전체윤곽은 남북공동발굴조사 때의 측량점을 기준으로 하였다. 특히 훼손이 많이 진행된 중심건축군 원덕전 일곽의 경우 고유섭의 「만월대 실측도」를 근거로 재작도하였다.

② 고려 본궤 및 궁성의 전체윤곽, 등고선, 구정과 우춘궁 일곽 등은 우성훈·이상해(2006)의 「고려정궁 배치 추정도」를 기본으로 하여 다시 작도하였다.

③ 회경전와 장화전, 신봉문와 창합문, 서부건축군 등은 북한의 발굴도면(1991)을 재작도한 후 주열과 기단을 중심으로 편집하였다.

④ 서부건축군은 1~8차 남북공동발굴조사 발굴배치도를 주열 중심으로 재편집하였으며, 임천각터는 2018년(8차 발굴조사) 지표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열을 작도하였다.

⑤ 수춘궁 일곽은 답사와 위성사진을 바탕으로 건물지로 보이는 부분에 전각을 임의로 그려 넣었다.

⑥ 동지(東池)는 리창언(1999)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위성사진에서 그 위치를 확인한 후, 동지의 범위를 배치도 상에 표시하였다.

⑦ 미발굴지역(금원 영역, 내전터 등)은 북한 자료(1991) 「만월대 배치도」에 그려진 건물지 표시와 발굴현장에서 확인한 지표유구, 그 동안의 발굴조사를 통해 밝혀진 건물지 양상을 참고하여 임의로 작도한 것이다.

「고려 본궤 종합배치 추정도」는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작도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잔존 유구(최종유구)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중첩된 유구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유구는 최종기인 현종 연간에 완성된 궁궐배치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미발굴조사 지역은 발굴배치도 상의 잔존 유구와 선행연구 및 위성사진 등을 근거로 필자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어서 객관성이 떨어지며 부정확할 수 있다.

3) 「고려 본궤 종합배치 추정도」는 1~8차 남북공동발굴조사 결과와 고유섭(2013),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1991), 우성훈·이상해(2006), 리창언(1999) 등의 연구자료를 참조하여 필자가 종합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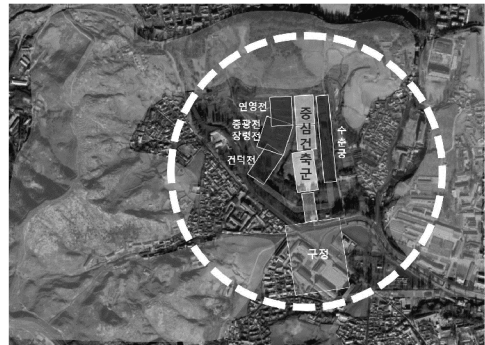
Ⅱ. 고려 본궐의 영역구성과 유구현황⁴⁾

1. 고려 본궐의 영역변화와 권역

태조 왕건은 혼란스런 후삼국의 시대적 배경과 도선이 접지해 준 명당터(삼한을 통합할 성자, 왕건의 출생지)라는 풍수도참사상의 영향 아래 기존시설(발어참성과 궁예가 사용했던 전각들)을 이용해 궁궐을 조영하였다. 그 결과 초기 고려 본궐은 궁궐로서 갖추어야 할 여러 시설이나 제도를 제대로 갖추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초기 고려 본궐은 훗날 장령전이 들어설 터(왕건이 태어난 곳)를 중심으로 건물미 배치되었는데,⁵⁾ 정전이었던 천덕전(건덕전)과 구정,⁶⁾ 위봉루(威鳳樓) 같은 시설이 조영되었다.⁷⁾ 고려 초기에는 회경전 등 중심건축이 아직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부건축군 천덕전(건덕전)을 중심으로 위봉루와 광명천 너머 구정이어지는 북동-남서방향의 축을 형성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가 황제국임을 선포한 광종대에도 대규모 궁궐 수축과 황성을 축조하였지만,⁸⁾ 중심건축군은 아직 조영되지 않았기 때문



[도 1] 창건 당시 고려 본궐 추정영역



[도 2] 최성기(현종대) 고려 본궐 추정영역

- 4) 고려 본궐의 영역구성 및 건물지군은 이상준(2019: 62~75)과 박성진(2012: 272~284)를 참조하였다.
- 5) 『고려사』 「고려세계」, 世祖居松嶽舊第, 有年又欲創新第於其南, 卽延慶宮奉元殿基也. (세조가 송악의 옛 집에 서 살다가 몇 년 후 또 그 남쪽에 새 집을 지으려 하니 곧 연경궁(延慶宮)의 봉원전(奉元殿) 터이다.)(번역: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봉원전(奉元殿)은 원래 장령전(長齡殿)인데, 고려 인종(人宗) 16년(1138) 5월에 '봉원전'으로 개명(改名)되었다.
- 6) 구정에 관한 기록은 개경으로 천도하기 전 태조 왕건이 철원성에 있을 때인 918년 처음 등장하며, 중심건축군이 조성되기 이전인 928년, 957년, 981년에도 기록이 남아있다. '구정'은 정해진 특정공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궁궐 전면에 위치하여 격구, 군사사열 등을 비롯한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는 넓은 뜰로 이해된다.
- 7) 김창현(2002: 233)은 태조대의 주요 전각과 시설로 정전인 천덕전, 편전인 중광전과 상정전, 침전인 신덕전 그리고 위봉루와 구정 등을 들고 있다.
- 8) 『高麗史』 卷二 世家 卷第二 光宗 十四年 六月, 遷御宮, 詔曰, “朕, 比爲重修大內, 久在離宮, …”.



[도 3] 고려 본궐 종합배치 추정도

에 서부건축군을 중심으로 궁궐영역이 확장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현종대에 이르러 비로소 회경전을 비롯한 중심건축군과 전면에 창합문(闔闔門), 신봉문(神鳳門), 구정(毬庭)과 승평문(昇平門) 등이 조영되었고, 문종대에는 중심건축군 동쪽에 수춘궁(壽春宮)이,⁹⁾ 인종대 이전에는 남쪽으로 우춘궁(右春宮)까지¹⁰⁾

9) 『高麗史』卷七 世家 卷第七 文宗 十年 九月, 己丑 祀太一於壽春宮, 以禳火災.

10) 『高麗圖經』卷第六 宮殿二, 右春宮在昇平門外御史臺之西. 『高麗圖經』에 우춘궁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인종대 이전에 이미 조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영역이 확장되면서 최성기를 이룬것으로 이해된다. 이후 고려 본궐은 잦은 전란과 내란으로 수차례 훼손과 중건을 반복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쇠락의 시작은 고종대의 몽골의 침략 이후부터이다. 고종이 강화에서 개경으로 환도할 당시에는 구정 일대와 중심건축군 대부분 훼손되었으며, 서부건축군의 강안전(중광전)이 정전을 대신하였다.



[사진 1] 고려 본궐 중심건축군과 서부건축군 전경(북→남)

정리하면 고려 본궐은 태조 왕건이 개경으로 천도한 919년부터 최성기인 현종대(1023년 경)까지 약 100여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확장되었는데, 창건 당시는 서부건축군을 중심으로 궁궐이 조성되었다면, 현종대를 기점으로 황궁으로서의 위상에 맞는 중심건축군과 동부건축군, 구정영역 등이 완성된 것으로 이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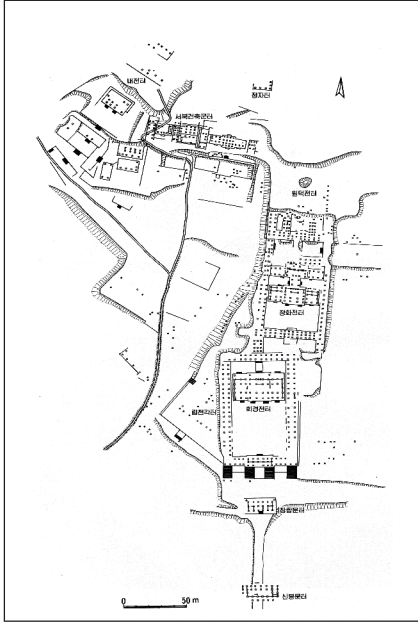
이상과 같이 현존하는 고려 본궐 유적은 수차례의 전란과 내란으로 유구의 중복과 중첩이 있을 것으로 이해되지만, 최성기인 현종대의 궁궐 영역과 유적이 현재까지 잔존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려 본궐의 최성기인 현종대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고려 본궐은 총 6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궁궐의 전정(前庭)이라 할 수 있는 구정 권역, 신봉문에서 중심건축군 전면 대축대 사이 권역, 회경전-장화전-원덕전으로 이어지는 중심건축군 권역, 중심건축군 서편의 서부건축군 권역, 중심건축군 동편의 동부건축군 권역과 궁궐 배후에 자리잡고 있는 그리고 금원 권역이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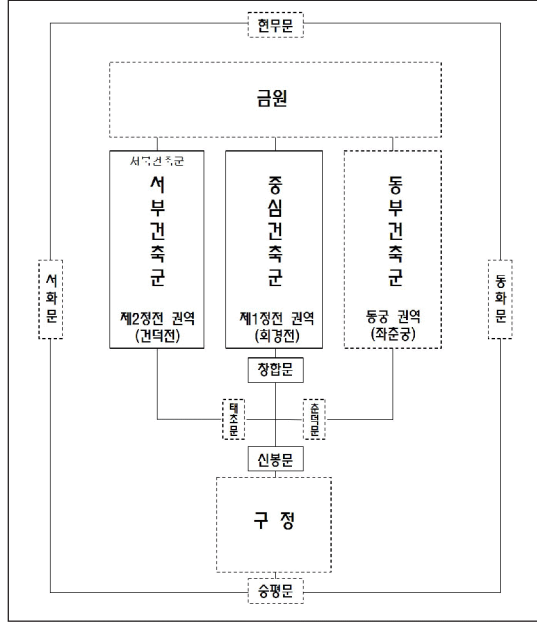
구정 권역은 승평문에서 신봉문 사이에 위치하는데, 이곳에서는 각종 궁중의례와 불교행사, 군사사열, 격구 등을 하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두 문을 중심으로 구정의 경계는 담장(혹은 회랑)을 둘렀고, 그 내부에 팔관사와 동락정 등이 위치해 있었다.

신봉문과 대축대 사이 권역에는 ‘중심건축군’과 ‘서부건축군’, ‘동부건축군’으로 출입하기 위한 문들이 위치하였는데, 궁궐의 각 건축군으로 동선이 나뉘는 출입의 길목이었다.

5개의 계단과 대축대를 포함한 중심건축군 권역에는 궁궐의 정전인 회경전과 편전인 장화전, 침전인 원덕전을 비롯해 임천각 등이 자리하고 있으며, 중심건축군의



[도 4] 만월대 배치도(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1991)



[도 5] 고려 본궐 권역도(이상준 2019)

전면과 좌·우측면에 조성된 410m에 이르는 거대한 축대는 서부건축군과 동부건축군 권역과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서부건축군은 중심건축군의 서편지역에 위치해 있는데(북한에서 발굴조사한 서북건축군 포함), 제2정전인 건덕전을 비롯하여 편전인 중광전, 선정전, 침전인 연영전, 자화전, 왕실사묘인 경령전과 궐내 사원인 내제석원 등 수많은 전각들이 있는 곳이다.

동부건축군은 중심건축군의 동편지역을 이르는데, 사료에 따르면 세자가 머물던 동궁(수춘궁)과 동지(東池)가 있었다고 한다. 끝으로 금원은 궁궐의 북편에 위치한 궁궐 후원으로 이곳에는 산호정, 상화정, 상춘정, 의춘루 등의 건물과 각종 조정시설이 있던 곳이다.

2. 건물지 현황과 운영시기

발굴조사보고서와 선행연구 등을 근거로 하였을 때 고려 본궐 만월대에서 확인된 건물지는 대략 80여동에 이른다. 이 중 중심건축군의 회경전터, 장화전터, 원덕전터, 신봉문터, 창합문터 등은 『고려도경』을 비롯한 사료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건물지도 온전히 남아있다. 하지만 중심건축군 이외의 지역에서 확인된 건물지들은 전각

명이나 그 성격이 제대로 규명된 바가 없다. 1973~74년 북한에서 발굴조사한 서북건축군(건물지 7개소)과 2007~18년까지 진행된 남북공동발굴조사(총 8차)에서 확인된 서북건축군의 9개소의 건물지군(1 건물지군~9 건물지군, 약 65개소 건물지) 역시 경평전터(3 건물지군)를 제외하면 건물지의 성격과 전각명 등이 명확치 않다.¹¹⁾ 이에 선행 연구와 발굴조사 내용을 토대로 건물지 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북건축군의 북편이자, 금원영역의 남쪽에 위치해 있는 서북건축군에는 1~7호 집자리(7동의 건물지)가 서에서 동으로 나란히 자리잡고 있는데, 북한 학자 장상렬(1988: 102~127)은 서북건축군 건물지의 영조척 분석과 문화층조사를 토대로 35.3cm(1차 시기), 31.2cm(2차 시기), 31.5cm(3차 시기)로 구분하였는데, 1호 집자리는 1문화층 35cm 안팎, 2문화층 31.4~31.5cm, 2호 집자리는 2문화층 31.5cm, 3호 집자리는 1문화층 35.3cm, 2문화층 31.2cm, 3문화층 31.5cm가 사용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4호, 5호, 7호 집자리의 경우 2문화층에 해당하며 31.5cm의 영조척이 사용되었으며, 6호 집자리의 경우는 1문화층(35.3cm)과 2문화층(31.5cm)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서북건축군에서 확인된 7개소의 건물지는 대체로 2차 시기(제2문화층)인 현종 연간의 대규모 궁궐조영공사가 있었던 시기와 일치하는데, 이 시기

[표 1] 서북건축군 집자리별 문화층과 운영시기(장상렬 1988: 102~127 참조)

연도	년간	내용	궁궐영역	시기		서북건축군 집자리
919~1011	태조 2년 창건	창건시기	서북건축군	창건기	1차 시기 (1문화층)	1, 3, 6호 집자리
1011	현종 2년	1차 소실(거란침입)				
1011~1031	현종 연간 (1011~1023년)	1차 중건 (대규모 궁궐 수축)	중심건축군 금원 동부건축군 구정 우춘궁 수춘궁	운영기	2차 시기 (2문화층)	1, 2, 3, 4, 5, 6, 7호 집자리
1126	인종 4년	2차 소실 (이자겸의 난)				
1132	인종 10년	2차 중건				
1171	명종 1년	3차 소실(화재)				
1179	명종 9년	3차 중건				
1225	고종 12년	4차 소실(화재)				
1232	고종 19년	강화 천도				
1270	원종 11년	4차 중건	서북건축군 일부	고려 말 유구	4차 시기 (4문화층)	-
1362	공민왕 11년	5차 소실 (홍건적의 난)				

11) 사료에 기록된 주요 전각들에 대한 정보는 매우 단편적인 반면,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건물지들은 비교적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어 주요 전각의 위치를 비정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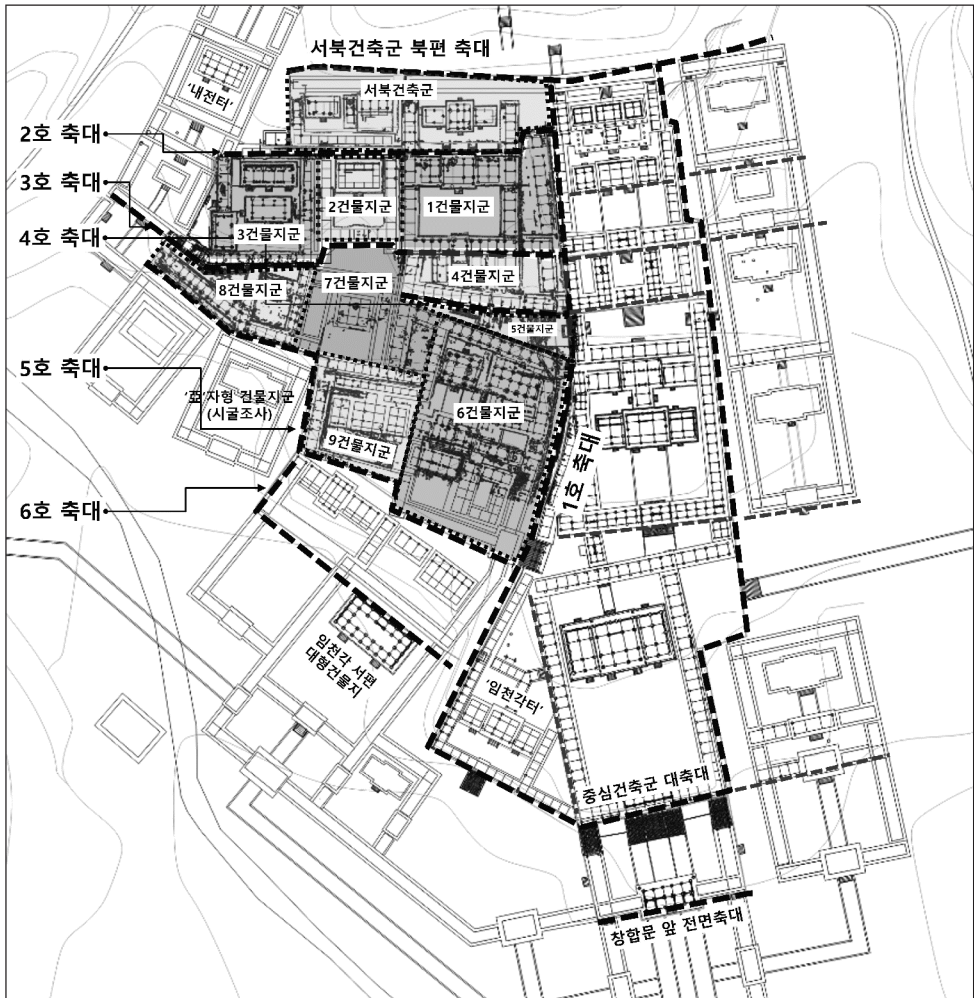
[표 2] 서부건축군 건물지군 현황 및 출토유물 중심시기(박지영 2019 참조)

구분 (기호)	중심 건물지	건물지 현황	출토청자 편년	발굴 년도
1건물지군 (I)	1-1호 건물지 · 'ㄹ'자형 평면 · 정면 9칸, 측면 3칸	1-1호 건물지를 중심으로 동·서·남회랑이 확인되었으며, 서북건축군 7호 집자리와 계단 2개소를 통해 연결됨, 1건물지군 동편으로는 1-6호 건물지와 1-7호 건물지가 원덕전 일곽의 서편에 자리잡고 있음(1-1~7호 건물지)	전기 중기	2007(2차) 2010(4차)
2건물지군 (N)	2-1호 건물지 · 장방형 평면 · 정면 5칸, 측면 3칸	2-1호 건물지를 중심으로 동·서·남회랑이 확인됨(2-1~4호 건물지)	중기	2008(3차) 2010(4차)
3건물지군 (R)	3-1호 건물지 · 장방형 평면(예단지대석) · 정면 5칸, 측면 3칸 3-2호 건물지 · 장방형 평면 · 정면 3칸, 측면 3칸	경령전터인 3-1호 건물지와 3-2호 건물지가 중심축선상에 위치하며, 동·서·남회랑이 확인됨 (3-1~6호 건물지)	중기 후기	2008(3차) 2010(4차)
4건물지군	-	1건물지군 남편에 남북방향의 건물지 4개소가 확인되었으며, 중심건축군 서편으로 3개소의 별도 건물지 확인됨 (4-1~8호 건물지)	전기 중기	2011(5차) 2014(6차)
5건물지군	-	중심건축군과 서부건축군을 연결하는 대형 계단과 문지 2개소(5-1~2호 건물지)	전기 중기	2014(6차)
6건물지군 (D, E, F)	6-1호 건물지 · 장방형 평면 · 정면 3칸, 측면 3칸 6-2호 건물지 · 'ㄹ'자형 평면 · 정면 7칸, 측면 3칸 6-3호 건물지 · 장방형 평면 · 정면 5칸, 측면 2칸	남북중심축선상에 6-1호 건물지, 6-2호 건물지, 6-3호 건물지가 북에서 남으로 자리잡고 있음 6건물지군 동편으로 회랑지와 증소형 건물지 10여동과 우물지가 확인됨 (6-1~13호 건물지)	전기 중기	2015(7차)
7건물지군 (M)	-	훼손이 심하여 유구는 대부분 유실되었으나, 기단석, 초석 등 건물지 유구가 교란층에서 다수 확인됨	중기 후기	2015(7차)
8건물지군 (Q)	8-1호 건물지 · 장방형 평면 · 정면 3칸, 측면 3칸(추정)	8-1호 건물지를 중심으로 동·서·남회랑이 확인되며, 8건물지 서편의 비석 받침석과 그 남쪽으로 동서방향의 남회랑지가 확인됨 (8-1~6호 건물지)	중기 후기	2015(7차)
9건물지군 (C)	9-1호 건물지(추정 건덕전지) · '工'자형 평면 · 규모: 정면 9칸, 측면 3칸	9-1호 건물지를 중심으로 동·서·남·북회랑이 확인됨 (9-1~5호 건물지)	중기	2010(4차)
임천각 서편 대형건물지 (A)	임천각서편 대형건물지 · 장방형 평면 · 규모: 정면 7칸, 측면 3칸	6건물지군 남편이자 임천각터 서편에 위치한 대형 건물지임, 동회랑지 초석 일부가 확인됨 (총 2동 건물지)	-	2007 (1차, 시굴)
8건물지군 남편 건물지군 (P)	8건물지군 남편 'ㄹ'자형 건물지	'ㄹ'자형 건물지의 북편 일부와 북회랑지 일부가 확인됨	-	2007 (1차, 시굴)
임천각터 (T)	추정 임천각터 · 'ㄹ'자형 평면 · 규모: 정면 7칸, 측면 3칸	회경전터의 서남쪽에 위치하며, 동·서·남회랑이 확인됨 (총 5동 건물지)	-	2018(8차)

는 회경전을 비롯한 중심건축군이 조영된 시기이기도 하다.

서부건축군은 중심건축군의 동편이자 서북건축군 남편에 위치해 있는데,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총 8차에 걸친 남북공동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곳이다. 서부건축군의 건물지군을 살펴보면, 가장 북쪽에 1, 2, 3 건물지군과 ‘내전터’가 각각의 일곽을 이루며 동에서 서로 차례로 연결해 있다. 1 건물지군 남쪽으로는 4, 5, 6 건물지군과 ‘임천각 서편 대형 건물지’가 북에서 남으로 경사를 따라 차례로 위치해 있으며, 2 건물지군 남쪽으로는 7, 9 건물지군(‘추정 건덕전지 건물지군’)이, 3 건물지군 남쪽으로는 8 건물지군과 시굴조사시 확인된 ‘亞자형 건물지군’이 차례로 자리잡고 있다.

4 건물지군과 5 건물지군을 제외한 각 건물지군의 공통점은 중심건물지가 중앙에



[도 6] 고려 본궐 발굴조사지역 건물지군 및 축대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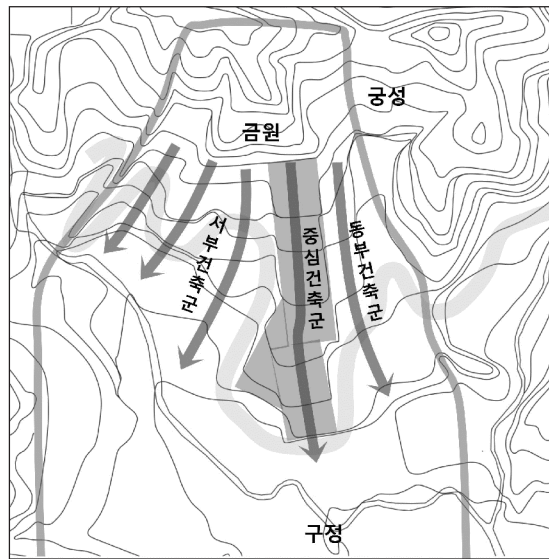
있고, 사방으로 회랑으로 둘러싸인 배치양상을 보이고 있다. 1 건물지군은 1-1호 건물지를 중심으로 1-2호 건물지(서회랑지), 1-3호 건물지(동회랑지), 1-4호 건물지(남회랑지)가 둘러싸고 있는 배치이며, 2 건물지군은 2-1호 건물지를 중심으로, 3 건물지군은 3-1호 건물지와 3-2호 건물지를 중심으로 동·서·남회랑이 있는 일곽을 이루고 있다. 특히 6 건물지군은 6-1호, 6-2호, 6-3호 건물지가 중심축선상에 배치되어 있고, 그 동편으로 정면 3칸 내외, 측면 1칸 내외의 중소형 건물지가 밀집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발굴조사 당시 ‘건덕전터’로 추정되었던 9-1호 건물지는 ‘亞’자형의 본채와 북편 동서방향의 회랑이 연결된 ‘工’자형 평면이며, 남쪽과 서쪽, 북쪽은 회랑지가 확인되었다.

각 건물지군의 운영시기에 대해서는 출토된 청자를 중심으로 건물지군의 운영시기를 분석한 박지영(2019: 117~132)의 연구가 주목되는데, 공통적으로 강화천도 이전인 고려 중기의 청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3. 지형과 축대 현황¹²⁾

고려 본궐의 주요 전각 위치와 궁궐 전체배치는 지형조건에 매우 큰 영향을 받는다. 고려 본궐은 송악산에서 뻗어 내린 구룡경사면에 입지해 있기 때문에 지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구룡경사면에 다수의 축대를 축조하여 대지를 조성하였다. 전체적인 지형은 광명천 부근에서 금원영역 남쪽경계까지의 높이 차이는 약 21m 내외로, 남에서 북으로 갈수록 급경사를 이루고 있다.

서부건축군의 지형은 북동쪽



[도 7] 고려공성 지형 개념도

12) 고려 본궐 지형과 축대에 대해서는 발굴조사 내용과 수치지형도, 이상준(2019: 62~75)의 연구를 참조하였다.

에서 남서쪽으로 낮아지는 형세인데, 가장 서편은 얇은 골짜기가 형성되어 있으며, 7건물지군(서부건축군의 중심부)을 중심으로 동서 양방향으로 낮아지다가 중심건축군에 이르러 지형이 급히 높아진다. 서부건축군의 낮아진 꼭부에는 성토를 하여 대지를 조성하였다. 중심건축군은 서부건축군이나 동부건축군보다 솟아오른 지형인데, 대체로 북에서 남으로 완만히 낮아지다가 회경전 남회랑 남쪽에서 급격히 낮아진다. 중심건축군 동편에 위치한 동부건축군은 서부건축군과는 반대로 북서에서 남동으로 낮아지는 지형이다.

고려 본궐은 이상과 같은 경사진 지형에 건물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축대를 조성하였는데, 현장에서 확인된 잔존 축대를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심건축군은 북면을 제외한 3면에 일직선상의 대축대를 쌓았는데, 회경전과 임천각 남쪽에는 7m 이상의 축대와 대형 계단을 조성하여 지형의 높이차를 극복하였다. 동쪽(동부건축군과의 경계)과 서쪽(서부건축군과의 경계)에는 남에서 북으로 경사를 따라 구간별로 높이를 점차 낮추어 축대를 조성하였다. 중심건축군 내부에도 동서방향의 축대를 축조하였는데, 장화전 남회랑지, 원덕전 남회랑지에 축대형식으로 남측기단과 계단을 축조하여 평탄면을 조성하였다.

서부건축군은 6개의 축대를 동서방향으로 쌓아 7개의 평탄면을 조성하였다. 1, 2, 3호 건물지군을 중심으로 북쪽에는 서부건축군이 있는 평탄면을 위한 2호 축대가, 남쪽에는 2, 3호 건물지군을 위한 3호 축대가 조성되었다. 4건물지군이 들어선 평탄면 남쪽에는 4호 축대가 1호 축대에서 시작하여 4건물지군 남회랑지를 따라 54m정도가 확인되었다. 5호 축대는 1호 축대 중간부분(회경전 북서편)에서부터 6건물지군 남편과 9건물지군(추정 건덕전지) 남회랑까지 100m가량 이어지다가 북쪽으로 꺾여 추정건덕전 서편 회랑을 따라 북향한 뒤 다시 서향한다. 이렇게 형성된 평탄면에는 5~9건물지군이 자리잡고 있다. 6호 축대는 서부건축군의 가장 남쪽에서 확인되었는데, ‘중심건축군’의 추정 임천각터 중간부근에서부터 서쪽으로 약 110m정도 일직선으로 이어지다 북쪽으로 꺾여 5호 축대와 만난다. 이 축대에 의해 형성된 평탄면에는 ‘亞’자형의 대형 건물지가 자리잡고 있다.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동부건축군에서도 경사진 지형에 직교하는 동서방향의 축대가 일부 확인되나 정확한 위치와 축조양상은 현재로서는 파악이 불가능하다.

전체적인 지형조건과 잔존축대를 요약하면, 주변보다 지대가 높은 중심건축군 좌우로 남북방향으로 경사진 지형에 서부건축군과 동부건축군이 자리잡고 있는데, 서

부건축군 북동에서 남서로, 동부건축군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경사진 지형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형에 궁궐을 조영하기 위해 각각의 건물지군에는 경사면을 성토하거나, 전면이나 측면에 축대를 쌓아 대지를 조성하였다.

Ⅲ. 고려 본궐 주요 전각 위치 재검토

1. 서부건축군 주요 전각 위치에 대한 선행연구

궁궐의 중심 영역은 행례(行禮)의 중심공간인 정전(正殿), 편전(便殿), 침전(寢殿)의 세 전각으로 구성되는 ‘삼전체제(三殿體制)’를 기본으로 하는데(조재모 2003: 148), 이는 궁궐의 주요 전각 배치와 건축형식의 기본개념이 된다. 고려 본궐 역시 ‘삼전체제’의 중심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심건축군과 서부건축군의 2원 체계로 구성된 점이 여느 궁궐건축과 다른 점이다. 고려 본궐의 배치체계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요 전각터가 확인되는 중심건축군보다 서부건축군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서부건축군의 전각 배치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선행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연구자마다 사료를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 그 견해를 달리해왔다.

[표 3] 고려 본궐 주요 전각명과 용도(현종~인종대 기준)(김동욱 1997: 107 참조)

구분	성격	전각명	건물용도, 사용례
중심 건축군	정전	회경전	제1정전, 송나라 사신접견, 팔관회 등 국가행사
	편전	장화전	행랑에 왕실 보물보관(고려도경)
	침전	원덕전	군사회의, 죄인형벌 등(고려도경)
	장서	임천각	수만권의 책을 보관(고려도경)
서부 건축군	정전	건덕전	제2정전, 외국사신, 즉위식 등
	편전	종광전	즉위식 거행 등, 개경환도 이후 정전으로 사용
	편전	선정전	군사사열, 시사, 사연 등(고려도경)
	편전	장령전	침전, 소규모 불사 등
	침전	만령전	희빈들의 침전
		연영전	학문소, 왕의 침전
		자화전	침전
	왕실 원묘	경령전	태조와 왕의 4대친의 영정을 모신 왕실원묘
	궐내 사찰	내제석원	태조 2년 개경에 창건한 10찰 중 하나로 제석신앙의 중심사원
	부속 전각	한림원	왕의 명령을 받아 문서를 꾸미는 일을 맡아보던 관청
예빈성		외국의 빈격을 접대하는 관청	
청연각		연회, 강론, 장서처	
보문각		경연, 장서처	
동부 건축군	동궁	수춘궁(좌춘궁)	태자(太子)의 책봉과 혼례 등 주요 행사를 거행한 태자궁
후원	금원	상춘정 상화정 산호정	각종 연회와 종교행사(불사, 초제, 기우제 등)가 이루어진 금원 내 정자

선행 연구자들은 주로 『고려사』에 기록된 전각의 기능과 성격을 분석하고, 『고려도경』에 묘사된 주요 전각의 상대적 위치를 바탕으로 추정하였는데, 정전인 건덕전(乾德殿), 편전인 중광전(重光殿), 선정전(宣政殿), 장령전(長齡殿), 침전인 만령전(萬齡殿), 연영전(延英殿), 자화전(慈和殿)을 비롯한 주변 전각(청연각(淸讌閣), 보문각(寶文閣), 집희전(集禧殿), 경령전(景靈殿), 내제석원(內帝釋院) 등)이 주요 대상이었다. 가장 이른 시기의 연구부터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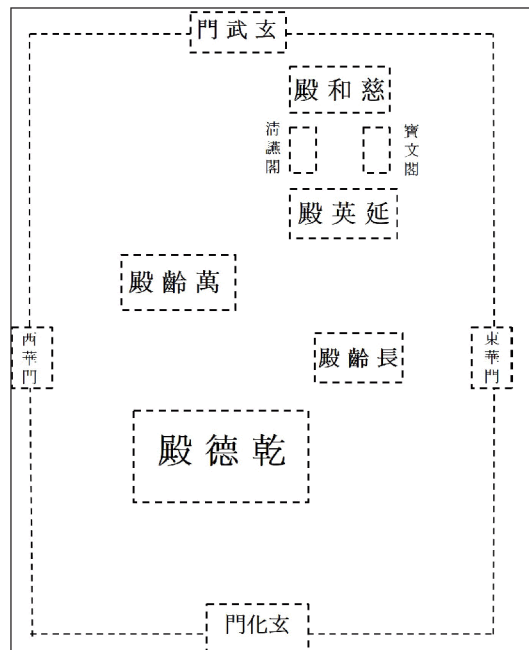
임효헌(1832)의 「高麗宮闕圖略」와 고유섭(1964)의 서부건축군 배치개념도에서의 서부건축군 정전인 건덕전 동쪽에 장령전, 북동쪽에 만령전, 건덕전의 북동쪽이자 장령전 북쪽에는 연영전과 자화전, 연영전과 자화문 사이 공간 동쪽에 보문각, 서쪽에 청연각을 각각 배치하였다. 편전인 중광전과 선정전은 표기하지 않았다.

마에마 교사쿠(前間恭作 1963: 1~55)는 건덕전 서편 남북중심축 선상에 중광전과 선정전을 위치시켰으며, 침전은 표기하지 않았다.

박용훈(1996: 33)은 개념도 형식의 지도인 「宮城, 皇城內의 宮殿과 重要 官廡」를 제시하였는데, 건덕전과 중광전, 선정전의 위치는 마에마 교사쿠와 동일하며, 만령전, 장령전, 연영전 자화전의 위치는 임



[도 8] 高麗宮闕圖略, 松京廣攷(임효헌 1832)



[도 9] 고유섭(1964: 삽도15)의 서부건축군 배치개념도(필자 재작도)

와 사료분석을 통해 고려 본궐 전체배치에 대해 제시하였다. 서부건축군의 경우 회경전 북서쪽 서부건축군의 중심부를 건덕전터로 설정한 후 그 남서쪽에 한림원, 남동쪽에 예빈성, 동쪽에는 장령전, 서쪽에는 선정전과 중광전의 위치로 추정하였다. 침전인 만령전과 연영전은 건덕전의 북쪽과 북동쪽에 나란히 배치하였으며, 침전의 북쪽에는 서에서 동으로 경령전과 청연각, 내제석원, 홍루와 보문각을 차례로 두었다. 그리고 그 북쪽에 자수전과 자화전을 서에서 동으로 나란히 배치하였다.

박성진(2012: 272~284)은 「고려궁성 서부건축군 건물배치 모식도」를 제시하였는데, 발굴조사된 유구를 근거로 각각의 전각들은 별도의 회랑으로 둘러싸인 독립된 공간으로 표현하였다. 정전인 건덕전을 중심으로 만령전, 연영전각과 자화전의 위치는 박용운, 김동욱 등과 대동소이하나, 영연전 전면에 보문각 3체를 나란히 배치한 점과 별도의 일곽으로 구성된 청연각, 남북축선상에 자리잡은 경령전과 집회전 등은 주목되는 부분이다. 한편 궐내 사찰인 내제석원의 위치는 서부건축군의 북동쪽으로 우성훈, 김창현과 대동소이하다.

이 밖에 북한 학자 정찬영(1989: 19~21)은 현장답사를 통해 건덕전, 중광전, 선정전 등의 유구를 확인했다고 하나 도면으로는 제시하지 않아 그가 언급한 건물지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¹³⁾

서부건축군 주요 전각에 대한 기존 연구자들의 대체적인 공통점을 정리하면, 정전인 건덕전은 서부건축군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편전인 중광전과 선정전은 건덕전의 서편에 서로 인접해 있다는 점이다. 만령전은 건덕전의 북쪽에, 장령전과 침전인 연영전, 자화전 등은 건덕전의 북동쪽에 남북축선상에 차례로 위치하며, 왕실원묘인 경령전은 발굴조사 결과와 같은 서부건축군의 북서쪽 3건물지군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건덕전의 전문과 합문, 강학·장서처이자 연회장소인 보문각, 청연각, 궁궐내 사찰인 내제석원, 부속전각인 집회전, 한림원, 예빈성, 홍루, 정의당 등은 연구자마다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¹⁴⁾

13) 정찬영은 정전인 건덕전의 유구와 그 서편에 위치한 선정전 초석과 중광전 유구 등을 비롯해 중광전 서쪽의 보문각과 청연각, 사루(闌樓) 등을 현장에서 확인했다고 하면서 유구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있다. 더불어 중광전 북쪽의 경령전, 자수전(집회전)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14) 이상과 같이 연구자마다 견해가 조금씩 상이한 이유는 『고려도경』의 기록이나 『고려사』 등의 사료에 기록된 단편적인 정보를 해석하는 과정상의 차이로 보이며, 더불어 대부분의 연구가 남북공동발굴조사 이전에 진행된 것이어서 건물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었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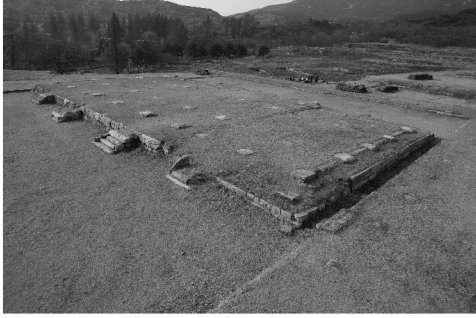
2. 고려 본궐 주요 전각 위치 재검토

1) 건덕전과 주변 전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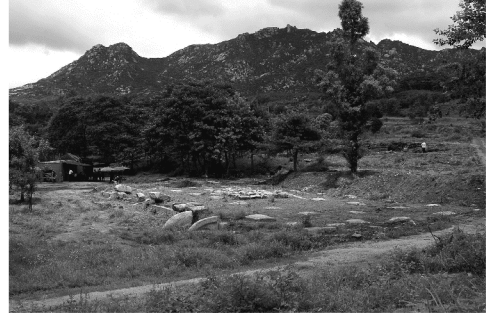
제2정전인 건덕전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서부건축군에 위치한 주요 전각 위치를 비정하는데 실마리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선결과제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고려도경』에 언급된 ‘회경전 북서쪽에 건덕전이 있다(乾德殿在會慶殿之西北).’는 기록에 근거하여 건덕전의 위치를 서부건축군의 중심부로 추정하였다. 이로 인해 나머지 주요 전각들은 좁고 협소하며, 경사가 급한 서부건축군의 북쪽으로 비정할 수 밖에 없었다. 건덕전은 회경전 건립 이후 그 중요성이 떨어지는 했지만, 고려 건국 당시부터 정전으로 사용되어 왔고, 회경전 건립 이후에도 즉위식을 비롯한 군사사열, 외국사신 접견 등 각종 의례와 국가행사가 행해지는 등 제2의 정전으로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하였다.

한 국가의 정전은 그곳에서 행해지는 의례를 감안하였을 때 전면의 넓고 평평한 대지가 필수조건이며, 건물의 위계나 궁궐의 ‘삼전체제’를 고려하였을 때 편전이나 침전 등의 전각들에 비해 가장 전면에 가장 웅장한 규모로 조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서부건축군에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건물지로 ‘A건물지’를 들 수 있다. A건물지는 서부건축군 건물지 중 가장 전면에 드러나 있으면서도 전면으로 넓고 평평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대규모 국가행사를 치를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한다. 또한 서부건축군에서 확인된 건물지 중 단일건물로는 가장 규모(정면 7칸, 측면 4칸)가 커서 정전(正殿)으로서의 위상에도 부합한다.¹⁵⁾ 반면 A건물지 주변과 북쪽으로는 대지가 비교적 협소하고, 건물지들의 밀도가 매우 높은 편이어서 건덕전으로 추정할 만한 건물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도 A건물지를 건덕전터로 추정하는 이유이다. A건물지를 건덕전터로 가정하였을 때 건덕전 일곽의 배치를 추정해 보면, 우선 A건물지 전면으로 행례를 위한 넓은 전정(前庭)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회랑으로 둘러싸인 독립된 일곽을 이루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덕전 전면에는 전문과 합문이 차례로 있으므로 회경전 일곽의 창합문과 회경전문 사이공간과 유사한 배치로 추정

15) 기단과 계단, 초석, 팔각활주초석 등 건축유구의 치석기법이나 부재의 크기가 서부건축군 건물지 중에서 가장 뛰어나며, 회경전에 버금갈 정도이다. 정찬영(1989) 역시 A건물지를 건덕전터로 지목하였는데, 건덕전터에 대해 “이 건덕전은 다른 궁전들보다 규모도 크고 동쪽계단, 서쪽계단의 란간돌과 돌의 줄무늬가 회경전의 그것과 같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사진 2] 중심건축군 회경전터 전경



[사진 3] 서부건축군 A건물지 전경

할 수 있다. 즉 회경전의 회경전문과 창합문은 건덕전의 전문과 합문에 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¹⁶⁾ 다만 건덕전의 합문의 좌향이 광명천 방향으로 남향했는지, 구정(毬庭) 방향인 태초문을 향해 동향했는지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한림원과 예빈성은 건덕전 주변에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¹⁷⁾ 한림원은 건덕전 서쪽에 있다고 하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현장 여건으로 보았을 때 건덕전의 남서쪽 광명천 건너편이나 C-1 건물지 남쪽으로 판단된다. 예빈성은 건덕전의 앞쪽 측면에 있었다고 하는데, 건덕전(A 건물지)의 남동쪽이자 T 건물지의 남쪽에 위치하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¹⁸⁾

2) 중광전과 선정전

건덕전의 편전인 중광전은 인종대에 강안전으로 개칭된다.¹⁹⁾ 고려 후기에는 강안

16) 『高麗圖經』卷五 宮殿一 乾德殿, 乾德殿在會慶殿之西北, 別有殿門. : 『高麗史』卷六十五 志 卷第十九, 禮七, 賓禮, 王出坐乾德殿, 閣門副使以上先入庭, … 舍人就聞辭位, 奏“北朝某使已到閣門, 伏候宣旨”. 전문과 합문의 존재와 위치에 대해서는 우성훈이 제시한 바 있다(우성훈·이상해 2006: 71).

17) 한림원은 고려 때에 임금의 명령을 받아 문서를 꾸미는 일을 맡아보던 관청으로 태조 때에 원봉성(元奉省)을 두고, 뒤에 학사원이라 하다가 8대 현종 때에 다시 한림원이라 하였다. 그 뒤에도 여러 차례 명칭이 바뀌었다가 1356년(공민왕 5)에 다시 한림원으로 되었고, 1362년(공민왕 11)에 예문관(藝文館)으로 바뀌었다. 예빈성은 고려 전기에 외국의 빈객을 맞이하고 접대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청으로 『高麗史』 백관지(百官志)에 의하면 921년(태조 4)에 예빈성을 설치하였고, 995년(성종 14) 객성(客省)으로 고쳤다가 뒤에 다시 예빈성으로 복구하였다(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http://encykorea.aks.ac.kr>.) 참조).

18) 『高麗圖經』卷十六 官府 臺省. 翰林院, 在乾德殿之西, 所以處詞學之臣. : 『高麗史』卷六十八 志 卷第二十二 禮十 嘉禮, 於禮賓省主廳, 設王幄. 命宰樞, 坐於左俠廳, … 中樞… 三品員節婦, 坐於右俠廳. 한림원은 건덕전의 서쪽에, 예빈성은 건덕전의 앞쪽 옆에 위치하고 있었다. 예빈성에서 회종4년(1208)에 「老人賜設義」가 행해졌는데, 主廳에는 왕의 임시휴게소가, 左右俠廳과 連廊 등에는 재신, 추밀관 등 초대된 사람들이 앉았다는 기록을 통해 본체와 걸쳐로 구성된 주전각과 회랑으로 구성된 일곽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우성훈·이상해 2006: 69).

19) 『高麗史』卷十六, 世家 卷第十六, 仁宗 十六年 五月, 重光改康安.

전에서 총렬왕의 즉위식이 거행되는 등 정전의 기능을 수행할 만큼 중심전각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는데, 주요 전각 중 가장 마지막까지 사용된 건물이었다.²⁰⁾

중광전의 위치에 대한 정보는 사료에 남아있지 않다. 다만, 건덕전과 인접해 있고,²¹⁾



[사진 4] 서부건축군 C건물지 전경

중광전에 익실, 서루, 남랑 등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아 회랑으로 둘러싸인 일곽에 본채와 좌우결채로 구성된 건물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남루에서는 격구를 관람하였고, 군사나 국마의 사열, 대회연(大會宴) 등이 개최되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건덕전과 마찬가지로 전면에 넓은 전정(前庭)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건물지는 C건물지나 P건물지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건물의 본채와 좌우결채(익실)로 구성된 건물지는 C건물지이다. C건물지는 대지가 축대 위에 조성되어 있고, 축대를 가로지르는 누각식 회랑과 그 남쪽으로 C-1 건물지(남회랑 또는 문지)가 자리잡고 있으며, 그 전면으로는 광명천까지 어느 정도의 넓고 평평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A건물지(건덕전)와 인접해 있어 C건물지가 중광전터일 가능성을 높게 한다.

선정전은 중광전과 함께 건덕전의 편전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중광전과 마찬가지로 그 위치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대지의 여건이나 편전으로서의 위치를 고려해 보면, 김동욱, 우성훈의 견해대로 건덕전의 서편이나 중광전(C건물지) 서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데, 이에 해당하는 건물지는 P건물지이다. 그런데 동일한 기능의 편전인 중광전과 선정전을 굳이 동서로 연결해서 배치하였을까하는 의문이 든다. 여기서 김창현(2002: 250)의 견해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는 외조(外朝)인 선정전에는 별도의 합문인 ‘서상합문’이 있는데, 서상합문은 태초문, 구정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므로 선정전을 건덕전 남쪽에 위치시켰다. 하지만 건덕전(A건물지) 남쪽

20) 『高麗史』 卷二十八, 世家 卷第二十八, 忠烈王 元年 八月, 王受詔畢, 謁景靈殿, 還御康安殿, 服黃袍卽位.

21) 김창현(2002: 250)은 중광전은 천덕전(건덕전)에 있던 정종이 벼락에 놀라 급히 중광전으로 옮겨간 예를 들면서 천덕전과 중광전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에는 선정전이 자리 잡을 만한 마땅한 대지가 없으며, 건덕전의 전면에 편전이 위치하는 것도 여러모로 부자연스럽다.

선정전이 구정, 태초문 등과 인접해 있을 것으로 보는 김창현의 견해에 부합하는 건물지로 T 건물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T 건물지는 기존에 ‘임천각터’로 알려진 건물지인데 회경전의 서남쪽에 위치해 있다. 지표조사 결과 중심건축군 대축대 위에 동·서회랑과 남회랑으로 둘러싸여 있는 건



[도면 11] 서부건축군 C, P 건물지와 중심건축군 T 건물지 위치도

물지이다. T 건물지는 주요 전각(정전, 편전, 침전 등)과 동일한 평면형식(본채와 좌우결채의 구성)이며,²²⁾ 동선상 회경전 및 A 건물지(건덕전)와 긴밀히 연결되는 지점에 자리잡고 있어 주목된다.²³⁾ 또한 T 건물지에서의 경관은 광명천 너머 구정 영역으로 넓게 트여 있는데, 전면 대축대 아래에 대형 계단 유구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구정으로 이어지는 별도의 동선이 마련되어 있어 우성훈이 고종한 태초문과도 가까운 위치이다. 선정전의 서상합문을 ‘서쪽(회경전 영역의 서쪽) 축대 위(上) 합문’으로 이해한다면 T 건물지 남회랑 중앙에 대형 계단과 연결되는 문지로 상정할 수 있다.

T 건물지가 선정전터일 가능성은 사료에서도 찾을 수 있다. 『고려사』에 선정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기사는 현종 8년(1017)인데, 이때는 현종대 1차 대궐 수영공사(1011년 10월~1014년 1월)가 끝난 이후이다. 즉 현종대 1차 수영공사 시기에 서궁이 언급한 것처럼 외조(外朝)의 개념으로 선정전이 건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²⁴⁾ 또한 『고려도경』에는 장경전, 중광전과 함께 선정전을 언급하면서, ‘장경전과 중광전

22) T 건물지는 2018년 지표조사를 통해 평면과 규모가 밝혀졌다. 고려 본궐의 주요 전각(회경전, 장화전, 원덕전 등)과 동일한 평면유형인 T 건물지는 본채 3칸, 좌우결채 2칸, 측면 3칸 규모이다.

23) T 건물지 배면 여간열에는 남북방향의 회랑이 마련되어 있는데, 회경전(제1정전), 건덕전(A 건물지, 제2정전)과 연결되는 동선상에 위치해 있다.

24) 『高麗史』卷四 世家 卷第四 顯宗 八年 九月, 戊戌 御宣政殿, 閱兵.

은 지금의 전각이 옛터에 있었는데, 이를 수리하여 별전(別殿)으로 바뀌었다.’고 언급한 반면, 선정전의 경우 옛터에 대한 내용 없이 ‘외조(外朝)로서 세시(歲時)에 신하들과 연회를 연다.’고만 기술하고 있어 차이를 보인다.²⁵⁾ 즉 선정전은 옛터가 아닌 새로운 터에 제1정전인 회경전과 제2정전인 건덕전이 만나는 중간지점에 별도로 조성된 편전 기능의 건물일 가능성이 있다.



[도면 12] 서부건축군 D, E, F, V건물지 위치도

3) 장령전과 만령전²⁶⁾

장령전은 강서(講書), 서적의 편찬 및 교정, 소규모 불교 법회의 장소로 이용된 전각으로 건덕전의 동자문(東紫門) 내에 위치한 것으로 이해된다.²⁷⁾ 그런데 『고려사』에는 선인전에도 동자문(東紫門)이 있고,²⁸⁾ 중광전에도 동자문이 있어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²⁹⁾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특정 전각의 동쪽에 있는 문을 ‘동자문’이라고 칭했을 가능성이 있다. 즉 건덕전 일곽에도 동자문이 있고, 선정전과 중광전 일곽에도 별도의 동자문이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장령전은 건덕전 일곽 내에 위치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는 자문(紫門)을 성(城)의 문으로 해석한다면, 동자문은 특정 전각의 문이 아닌 정전인 건덕전과 편전인 중광전, 장령전, 그리고 선인전 등의 건물들이 모여 있는 특정 권역의 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³⁰⁾

25) 『高麗圖經』, 卷六 宮殿 二 長慶殿, 長慶重光宣政三殿, 舊記雖載其名, 今聞更修重光長慶, 易爲別殿, 恐是今建閣之地. 宣政卽外朝也, 歲時與其臣屬會飲.

26) 『高麗史』 「高麗世系」에 따르면 장령전(봉원전)은 태조 왕건이 태어난 곳으로 후에 초기 분권의 중심이 되는 위치이다. 이후 여기에 만들어진 궁궐을 대궐명당이라 불리게 된다.

27) 『高麗圖經』 卷六 宮殿 二 長齡殿, 長齡殿在乾德之東紫門內.

28) 『高麗史』 卷八十三 志 卷第三十七 兵三, 宣仁殿東紫門 大將軍一, 將軍一, 南紫門 中郎將一.

29) 『高麗史』 卷十三 世家 卷第十三 睿宗 五年 五月, 弘嗣等詣重光殿東紫門, 固請至晡, 竟不允.

30) ‘자문(紫門)’은 고려, 조선 시대 궁전(宮殿)을 둘러싼 자성(紫城)에 설치되었던 문(門)으로 대개 신하들끼리 나

즉 동자문은 서부건축군 정전과 편전을 아우르는 영역의 동쪽 경계에 있는 문으로 이해한다면 중심건축군과 서부건축군을 구분짓는 곳이 위치하는 것이 적당하다. 두 번째 가능성에 부합하는 건물지로 V건물지를 들 수 있다.³¹⁾ V건물지는 중심건축군의 서편에 북에서 남으로 이어진 대축대에 설치된 대형 계단 위에 있는 문지인데(정면 3칸, 측면 2칸), 중심건축군과 서부건축군을 연결하는 관문이자 서부건축군 정전과 편전 일대를 아우르는 곳에 자리잡고 있다. V건물지를 동자문으로 가정하였을 때 장령전은 건덕전과 함께 동자문 내에 있으며, 장령전의 북쪽에는 연영전각이 있다고 하였으므로 건덕전(A건물지)의 북쪽이자 연영전(I건물지)의 남쪽에 위치한 6건물지군(B, D, E, F건물지)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³²⁾ 이중 전면이 3칸인 건물지는 F건물지이고, 본체(좌우결체 제외)가 3칸인 건물지는 E건물지인데,³³⁾ 두 건물지 중에 뒤에서 다를 연영전의 바로 남쪽에 위치한 F건물지가 장령전일 가능성이 더 높다.

만령전은 희빈들의 침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시녀들이 만령전에 빙 둘러 거처하고 있었다고 하며, 건덕전 북쪽 작은 터에 있었다고 한다.³⁴⁾ 만령전으로 가장 유력한 건물지는 D건물지나 E건물지를 들 수 있다. D, E건물지 동쪽으로 G, H건물지가 자리잡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오밀조밀 모여 있는 건물지들과 온돌유구가 있는 남북 방향의 출행랑, 건물지 내에 위치한 우물지 등 생활과 관련한 건물지 유구가 다수 확인되었다. 만령전의 기능(희빈들의 침전, 시녀들의 거처 등)을 고려하였을 때 G, H건물지는 침전과 편전의 서비스공간으로 추정되며, 이 건물지들과 가장 인접해 있는 D건물지나 E건물지가 만령전일 가능성이 있다.

4) 연영전·자화전과 청연각·보문각

연영전은 장령전(E건물지) 북쪽에 있다고 하였고, 건덕전(전면 7칸)과 대략 크기가 같다고 하였으므로 F건물지 북쪽에 위치한 I건물지(정면 7칸)일 가능성이 높다.

라의 일을 의논할 때 모였던 곳이다.’(한국겨레문화연구원, 『한국고전용어사전(<http://www.sejongkorea.or>)』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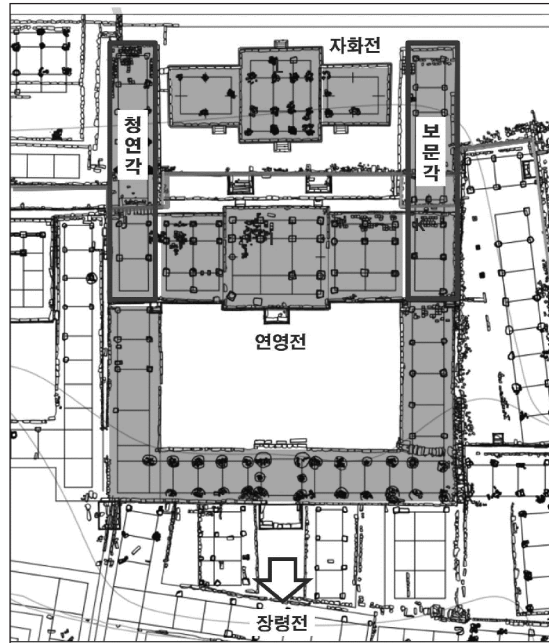
31) 서부건축군과 중심건축군을 연결하는 대형 계단 위에 자리잡은 누각형식의 문지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규모이다. 위치나 규모로 보았을 때 서부건축군과 중심건축군 두 영역의 관문 역할을 하는 문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32) 『高麗圖經』卷六 宮殿二 延英殿閣, 延英殿閣, 在長齡之北.

33) 『高麗圖經』卷六 宮殿二 長齡殿, 其制三間, 雖華煥不逮萬齡而規模過之.

34) 『高麗圖經』卷五 宮殿一 萬齡殿, 萬齡殿在乾德之後, 基太上御名差小, 而藻飾華麗, 蓋寢室也. 姬嬪侍女於兩廡列室而環居.

자화전은 연영전 북쪽에 있다고 하였으니 서북건축군 6호 집자리(L건물지)이면 위치상 타당하다.³⁵⁾ 그러면 청연각과 보문각의 위치는 어디일까? 『고려사』에는 예종(睿宗) 11년(1116)에 연영전의 북쪽이자 자화전의 남쪽에 청연각(淸燕閣)을 지었는데, 얼마 뒤에 청연각이 궁궐 안에 있어서 학사들이 숙직과 출입에 어려우므로 그 옆에 별도로 각(閣)을 설치하고 관호(官號)를 고쳐 보문각이라고 하였다고 한다.³⁶⁾ 즉 청연각과 보문각 2각을 시간차를 두고 건립한 것으로 이해된다.³⁷⁾



[도 13] 연영전과 자화전, 청연각과 보문각 추정 위치도

『고려도경』에 보문각을 3각(三閣)이라 표현한 것은 ‘2각(二閣)’의 오기(誤記)로 판단된다. “자화전 앞에는 세 각(三閣)을 세워 보문각이라 했는데 송(宋)의 여러 황제들이 내린 조서를 보관한다. 서쪽 청연각은 여러 역사서와 제자백가서(子集)를 보관한다.”를 “자화전 앞에는 두 각을 세웠다. / (동쪽) 보문각은 송의 여러 황제들이 내린 조서를 보관한다. / 서쪽 청연각(淸燕閣)은 여러 역사서와 제자백가서(子集)를 보관한다.”로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³⁸⁾

35) 서북건축군의 연영전과 자화전은 중심건축군의 원덕전 일곽과 동일한 기능의 침전영역으로 추정되는데, 고려 시대 궁궐이나 행궁 등에서 침전의 난방은 온돌이 아닌 별도의 시설을 이용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서궁의 『고려도경』에 따르면 고려의 상류주택 등에서는 침상이나 평상 등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궁궐의 침전에서 온돌 난방이 아닌 침상과 같은 별도의 시설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36) 『高麗史』 卷七十六 志 卷第三十 百官 一 寶文閣, 尋以淸燕閣在禁內, 學士直宿出入爲難, 就其旁別置閣, 改官號曰寶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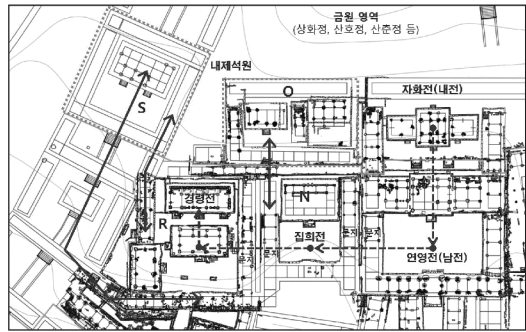
37) 『高麗史』 卷九十六 列傳 卷第九 諸臣 金仁存, 王宴親王·兩府于淸燕閣, 命仁存記其事. 其文曰, “王以聰明淵懿篤實輝光之德, 崇尚儒術, 樂慕華風, 故於大內之側延英書殿之北慈和之南, 別創寶文·淸燕二閣. 예종이 김인존에게 청연각에서 열린 축하 잔치의 기문을 짓게 한데에서도 청연, 보문 2각을 별도로 지은 것이 확인된다(번역: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38) 『고려도경』에는 오기와 오타가 다수 있음을 염두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高麗圖經』에는 “又其北曰慈和, 亦爲燕集之處, 前建三(二)閣, (東)曰寶文, 以奉累聖所錫詔書. 西曰淸燕, 以藏諸史子集. 嘗太上御名得其燕

이를 근거로 청연각과 보문각의 위치를 추정해 보면, I건물지와 L건물지가 침전인 연영전과 자화전이고, 그 전각 사이 2호 축대 위 동쪽과 서쪽에 보문각(J건물지)과 청연각(K건물지)이 마주보고 위치했을 것으로 보인다. 청연각이 대내에 있어 학사들이 출입불편 운운했다는 것은 침전인 자화전(L건물지) 전정(前庭)을 지나쳐야 하는 동선상의 고충을 언급한 것으로 이해된다.³⁹⁾

5) 경령전과 내제석원

경령전은 3 건물지군 북쪽에 자리잡은 ‘R 건물지’가 확실시된다.⁴⁰⁾ 인종대의 기록 중 ‘왕(인종)이 이자겸의 난으로 궁궐에 화재가 발생하자 경령전에 가서 역대 조상의 화상을 궁성 내제석원(內帝釋院)에 있는 마른 우물 안에 넣게 한 후 서화문(西華門)을 거쳐 나갔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를 통해 경령전



[도 14] 경령전 의례동선과 주변전각 추정 위치도

→내제석원→서화문으로 이어지는 동선을 유추할 수 있다.⁴¹⁾ 또 다른 사료를 통해 경령전은 궁궐의 북쪽에 금원과 인접해 있으며, 경령전에 인접하여 십원전(어불당)과 소전(小殿) 등이 있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⁴²⁾

記”라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교정하여 해석해 보면 “또 그(연영전) 북쪽에는 자화전이 있는데, 연회하는 장소이다. (자화전)앞에는 세 각(三閣, 二閣의 오기로 판단됨)이 있는데, (동쪽) 보문각(寶門閣)은 송(宋)의 여러 황제들(累聖)이 내린 조서를 보관한다. 서쪽 청연각(淸燕閣)은 여러 역사서와 제자백가서(子集)를 보관한다.”이다. 서술방식은 ‘연영전의 위치와 기능’→‘자화전의 위치와 기능’→‘보문각과 청연각에 대한 위치와 기능’ 순으로 서술되어 있다.

39) 『高麗史』 卷七十六志 卷第三十 寶文閣, 尋以淸燕閣在禁內, 學士直宿出入爲難, 就其旁別置閣, 改官號曰寶文.
 40) R 건물지는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로, 배면열을 따라 각 칸에는 대리석으로 조성한 신단 지대석이 확인되었다. 『고려사』 「경령전」에 따르면 중앙에는 태조의 초상과 좌우로 번갈아 왕의 4대친 진영을 봉안하였다 한다.
 41) 『高麗史節要』, 卷九 仁宗恭孝大王 仁宗 四年 二月, 癸亥. 黎明, 王以火焰將逼, 欲出. 會, 資謙遣承宣金珣請出御南宮. 王步至景靈殿, 命內侍白思淸奉祖宗神御, 納諸內帝釋院甕井中, 乃出西華門, 乘馬至延德宮. 왕은 걸어서 경령전(景靈殿)에 이르러 내시 백사청(白思淸)에게 명하여 조종의 어진(神御)을 만들어 내제석원(內帝釋院)에 있는 마른 우물 안에 넣여놓도록 하고 곧 서화문을 나가 말을 타고 연덕궁(延德宮)에 이르렀다(번역: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42) 『三國遺事』 卷第三 塔像第四 前後所將舍利. 선화 원년 기묘 예종 15년에 입공사 정극영, 이지미 등이 가지고 온 불아(佛牙)는 지금 내전에 봉안한 것이 그것이다. …예종이 크게 기뻐하여 그것을 십원전(十員殿) 좌측

경령전 의례동선을 보면, ‘왕은 내전에서 남전을 거쳐 집회전에서 ‘점향삼배’를 한 후 경령전에 이르러 예를 올린다.’라고 되어 있다.⁴³⁾ 3건물지군(R건물지)이 경령전 일곽이고, 내전과 남전이 자화전(I건물지)과 연영전(J건물지)라면 2건물지군(N건물지)을 집회전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경령전과 인접한 곳에 십원전(어불당), 소전(小殿), 불아전(佛牙殿) 등이 위치했음을 알 수 있는데, 3건물지군 내에 위치한 2동의 건물지가 십원전과 소전, 또는 불아전일 가능성이 있다.⁴⁴⁾

내제석원은 금원과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했거나 인접해 있으며,⁴⁵⁾ 경령전과 집회전에 인접해 있었다고 한다. 금원과 가까우면서도 동선상 2건물지군(N건물지)과 3건물지군(R건물지)로 연결되는 건물지는 O건물지와 ‘내전터’로 알려진 S건물지를 들 수 있다.⁴⁶⁾ 이중 S건물지는 경령전 서회랑지 북편 끝단과 S건물지 일곽의 남회랑지가 맞닿아 있으며, 경령전(R건물지) 남회랑지와 S건물지 남회랑지가 동선상 직접 연결되어 주목된다. 지형과 동선 등을 고려했을 때 서부건축군의 서북쪽과 서북건축군 일대는 선왕의 명복과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는 경령전 등의 왕실원묘와 궁궐내 왕실사찰인 내제석원, 천문을 통해 길흉을 점치던 첨성대 등이 모여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6) 임천각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임천각터로 알려진 T건물지는 서궁이 언급

작은 전각에 봉안하고…중략… 왕은 내신을 시켜 불어를 두루 찾아보았으나 발견치 못하였다…중략…임진년에서 지금 병신년까지 5년 동안의 어불당(御佛堂)과 경령전의 수직자(守直者)들을 잡아 가두고 심문하였으나…중략…다시 십원전 중정(中庭)에 불아전을 지어 불어를 봉안하고 지키게 하였다(번역: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43) 『高麗史』卷六十一 志十五 禮三 吉禮大祀 景靈殿

44) R건물지(3건물지군) 주변에서는 범자문막새기와가 다수 출토되어 경령전 주변에 불교와 관련한 전각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범자는 실담범자로서 로마자 범자 표기로는 ‘firif’라고 쓴다. ‘firif’는 부처로서 ‘아미타여래’를, 보살로는 ‘천수관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1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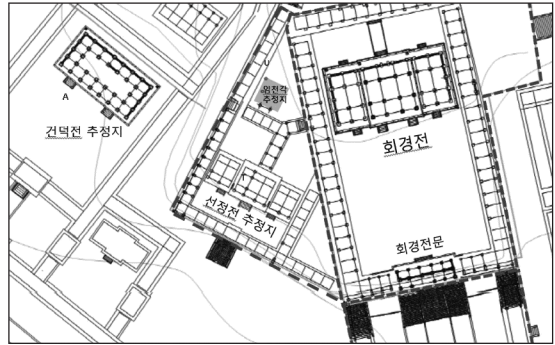
45) 『高麗史』, 卷一百二十七 列傳 卷第四十 叛逆 李資謙, ‘是日, 宮禁焚蕩, 惟山呼·賞春·賞花三亭及內帝釋院廊廡數十間僅存. 이날 궁궐이 모두 불타버리고 산호, 상춘, 상화의 세 정자와 내제석원의 회랑 수십 간(間)만이 겨우 남아있을 뿐이었으며…중략(번역: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46) 경령전터 북서쪽에는 경사진 지형을 따라 남서방향의 중심축을 형성하는 건물지군이 확인된다. 회랑으로 둘러싸인 건물지군이 최소 2개소 이상 잔존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1991)의 「만월대 배치도」에는 ‘내전’이라 표기되어 있으며, 정찬영(1989)은 중심건축군 동쪽 동궁(수춘궁)과 대응하는 서쪽에 내전터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내전’은 외전의 상대되는 용어로 보통 왕과 비의 처소가 있는 침전구역을 일컫는데, 『고려사』에 ‘내전’의 용례를 찾아보면, 대체로 왕실 가족사와 관련한 잔치를 열거나, 불교 또는 도교행사 관련 기사가 다수 확인된다. 이러한 침전 영역이 궁궐의 서북쪽 후미진 골짜기에 위치하는 것은 여러 모로 불합리해 보인다.

한 임천각터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서궁(徐宮)은 임천각(臨川閣)에 대해 ‘임천각은 회경전의 서쪽 회동문(會同門) 안에 있다.(위치) 건물(屋)은 네 기둥으로 되어있고 창호가 사방으로 나 있으나(건물의 형태), 밖이 겹처마가 아니라서 자못 대문(臺門)과 같다.(규모, 경관) 연회하는 곳이 아니라 그 안에는 수만 권의 책이 소장되어 있을 뿐이다.(기능)’라고 하였다.⁴⁷⁾

이를 건축적으로 해석하면, ‘임천각은 회경전의 서쪽에 있는데, 그 형태는 창호가 사방으로 나 있는 정방형(네기둥)평면의 건물이며, 겹처마가 없는 중소규모의 건물이다. 또한 대(臺)의 문

(門)과 같이 생겼는데, 책을 보관하는 서고(書庫)여서 통풍이 원활하고, 전망이 좋은 축대 위에 누각형식의 건물이다.’로 해석이 가능하다.⁴⁸⁾ 그렇다면 서궁이 언급한 임천각의 위치는 어디일까? 서궁이 언급한 회경전 서쪽에는 작은 삼각형의 대지가 확인되는데, 정면 3칸, 측면 3칸 내외의 정방형 건물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다(U건물지). 지표조사 결과 초석과 장대석 등 건물지 유구가 일부 확인되었고, 서부건축군이 내려다보이는 위치여서 바람이 잘 드는 누각식 건물이 자리잡기 알맞은 곳이다. 즉 서궁이 언급한 임천각은 T건물지보다는 U건물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도 15] 임천각터 추정 위치도(U건물지)



[사진 5] 중심건축군 회경전 서편 임천각터 추정지

47) 『高麗圖經』卷六 宮殿二 臨川閣, 臨川閣在會慶殿西會同門內. 爲屋四楹, 窓戶洞達, 外無重簷, 頗類臺門. 非燕集之地, 其中藏書數萬卷而已.

48)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기능(장서(藏書))과 형태를 갖는 건물로 조선시대 건물인 오대산사고(五臺山史庫)를 들 수 있다.

IV. 고려 본궐 배치체계와 동선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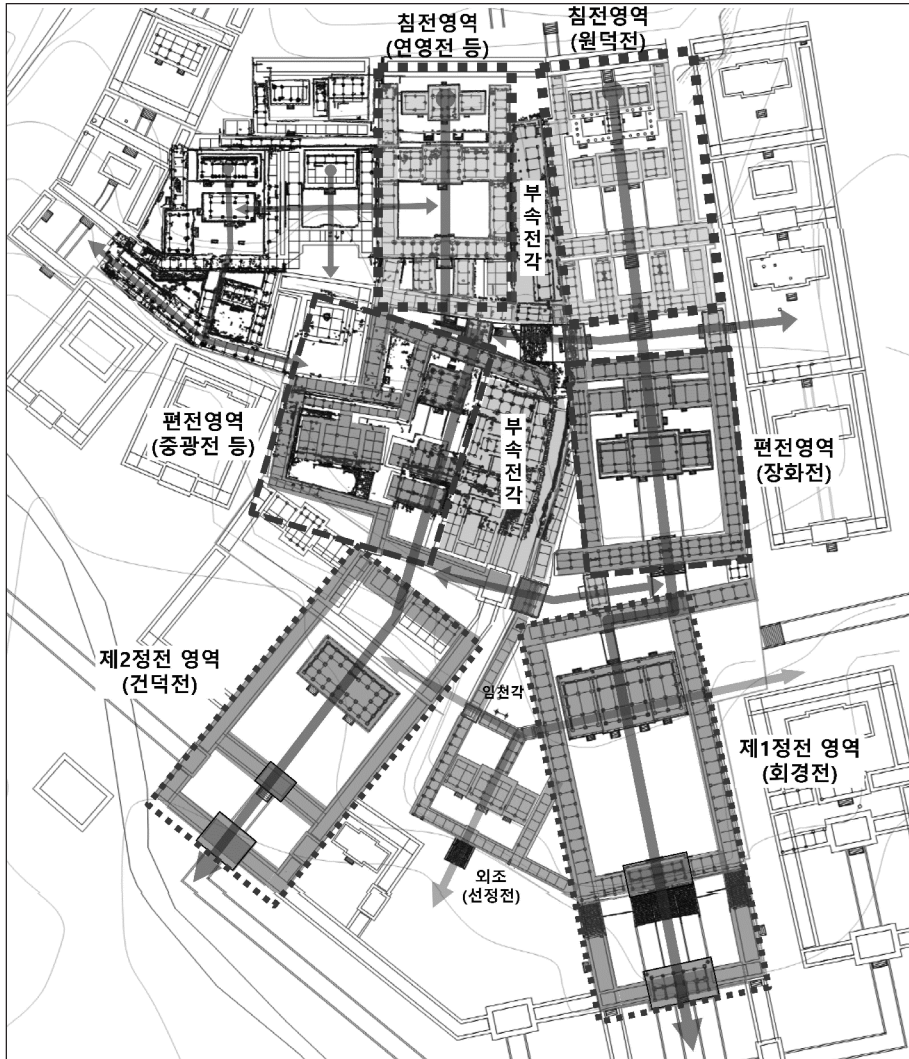
1. 배치체계

동아시아의 궁궐 배치는 나라별, 시대별로 나름의 차이는 보이지만 대개 『주례』 「고공기」의 원칙에 따라 앞에는 조정(朝廷)을 두고 뒤에는 침전을 두는 전조후침(前朝)제도가 일반적이며, 궁궐의 주요 전각은 왕이 왕세자, 신하, 사신들로부터 조하를 받는 의례공간인 정전(正殿), 어전회의와 경연을 하는 편전(便殿), 왕과 비의 침전(寢殿)으로 구성된 중심영역으로서의 삼전(三殿)과 선왕의 어진을 모시는 진전(眞殿), 침전구역 뒤에 조성하는 후원(後園) 등으로 구성된다. 고려 본궐 중심건축군에서도 이러한 궁궐의 전각 구성과 배치질서가 명확히 드러나는데, 정전인 회경전과 편전인 장화전, 침전인 원덕전, 후원인 금원 등이 그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서부건축군의 주요 전각의 위치를 추정할 결과 중심건축군과 마찬가지로 정전-편전-침전의 영역구성과 배치질서를 확인할 수 있다.⁴⁹⁾

첫째, 건덕전을 중심으로 한 정전영역이다. 중심건축군 회경전 일곽은 회경전-회경전문-창합문으로 연결되는 남북축선상에 회랑으로 둘러싸인 장방형 공간을 형성하고 있는데, 회경전의 서편 동일선상에 위치해 있는 A 건물지(건덕전 추정지)에서도 이러한 배치를 유추해 볼 수 있다. A 건물지는 그 규모와 격식으로 보아 회랑으로 둘러싸인 일곽을 형성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건덕전-전문-합문으로 이어지는 건덕전 일곽의 배치를 고려하였을 때 회경전 일곽과 유사한 배치일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중광전 등이 있는 편전영역이다. 중심건축군의 편전인 장화전(‘工’자형 평면) 일곽의 서편 동일선상에 중광전으로 추정되는 C 건물지(‘工’자형 평면)와 함께 비교적 규모가 큰 건물지(D, E, F, G 건물지)가 다수 확인된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들 건물지 가운데 장령전을 비롯한 만령전 등의 건물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비록 중심건축군의 장화전 일곽과 같이 정연한 배치는 아니지만, 1호 축대상의 대형 계단 2개소를 기준으로 서부건축군 편전영역을 한정지을 수 있다.

49) 서부건축군의 정전과 편전, 침전은 고려 본궐 창건시부터 어느 정도 갖추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고려 본궐은 궁궐영역의 확장, 중심건축군의 조영 등의 변화를 거치면서 고려 본궐의 배치체계를 완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에서 다룬 배치체계는 고려 본궐 최성기인 현존연간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수차례의 중건과 중수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배치질서와 전각의 위치는 크게 변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도 16] 중심건축군과 서부건축군의 정전-편전-침전영역 체계와 동선체계

셋째, 연영전과 자화전 등으로 구성된 침전영역이다. 고유섭의 「만월대 실측도」 원덕전 일곽을 살펴보면, 회랑으로 둘러싸인 ‘亞’자형 건물지 2동이 남북중심선상에 자리잡고 있고, 남회랑지 남쪽에는 남북방향의 건물지 4동과 다시 그 남쪽에 동서방향의 회랑지와 문지가 확인된다. 이러한 건물배치는 원덕전 일곽 서편 동일선상에 남북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는 서북건축군 5, 6, 7호 집자리, 서부건축군 I, J, L, K 건물지, 4건물지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건물지들은 연영전, 자화전, 보문각과 청연각으로 추정되는 건물지인데, 원덕전 일곽과 동일한 기능과 의례가 이루어진 침전영

역으로 이해된다.⁵⁰⁾

한편 서부건축군과 중심건축군 사이에는 완충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1 건물지 동편 W 건물지를 비롯해 X 건물지 등은 침전영역과 동선상 연결되지 않고, 보문각과 인접해 있는 독립된 공간인 것으로 보아 박성진(2012)의 견해대로 학사들의 휴식공간인 홍루(紅樓)와 강론공간인 정의당(精義堂) 등으로 볼 수 있다.⁵¹⁾ 또한 6 건물지 군 동편에 위치한 건물지(G, H 건물지 등)들에서는 남북방향의 줄행랑을 비롯해 우물터, 온돌시설 등 생활공간으로 보이는 작은 규모의 건물지들이 다수 확인되었는데, 이곳은 내시나 궁녀들이 머물며 주변 전각(편전, 침전 등)의 의례를 지원하는 공간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정리하면, 2개소의 대형 계단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중심건축군과 서부건축군은 각각 정전, 편전, 침전영역으로 구성된 삼전체제를 갖추고 있는 동시에 2원 체제로 운영된 고려 본궐의 독특한 배치체계를 보여준다. 또한 서부건축군과 중심건축군 사이에 위치한 서비스기능과 부속기능의 부속 전각들은 두 영역을 구분해 주고 보완해 주는 완충역할을 하는 공간임을 알 수 있다.

2. 동선체계

고려 본궐과 같은 궁궐건축은 규범과 의례가 전체 배치계획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궁궐의 규범과 의례는 동선계획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각 영역의 상호관계와 성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중심건축군과 서부건축군의 동선체계를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심건축군 침전일곽인 원덕전에서 시작하여 중심축선상의 계단과 문을 수차례 지나면 장화전 남회랑 남문까지 이어진다. 장화전 남문은 회경전 북회랑 동편으로 이어지는데, 여기서 축을 달리하여 회경전 북회랑 중앙으로 이동하면 회경전과 연결되는 어도와

50) 고유섭(1964)은 「만월대배치도 및 회경전평면도」에 침전영역의 남쪽 건물지를 '원덕전'으로, 북쪽 건물지를 '장경전(長慶殿)'으로 표기하였는데, 이는 서부건축군의 연영전과 자화전과 일맥상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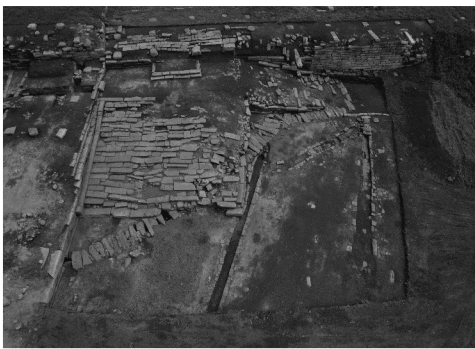
51) 『高麗史』卷七十六 志 卷第三十 百官 一 寶文閣, 尋以清燕閣在禁內, 學士直宿出入爲難, 就其旁別置閣, 改官號曰寶文, 加置待制, 官班視給舍, 直賜金紫, 仍修紅樓下南廊, 爲學士會講之堂, 賜號曰精義, 就其左右爲休息之所, 充其選者, 皆一時豪傑. 정연각이 궁궐 안에 있어서 학사들이 숙직과 출입에 어려우므로 그 옆에 별도로 각(閣)을 설치하고 관호(官號)를 고쳐 보문각이라고 하였다. …중략… 홍루(紅樓) 아래 남랑(南廊)을 수리하여 학사들이 모여 강의하는 곳으로 삼게 하고, 정의(精義)라는 이름을 하사하였으며, 그 좌우편을 휴식하는 곳으로 삼게 하였으니, …이하생략(번역: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만나게 되고, 이를 따라 남쪽으로 이동하면 회경전, 회경전문, 창합문, 신봉문, 구정과 승평문에 다다르게 된다.

중심건축군에서는 동서방향의 동선체계도 확인되는데, 회경전에서는 동쪽으로는 동부건축군 수춘궁영역, 서쪽으로는 T건물지와 서부건축군 A건물지로 연결된다. 정전영역과 편전영역, 편전영역과 침전영역 사이에는 동서로 긴 장방형의 완충공간이 형성되어 있는데, 서쪽으로는 2개소의 대형 계단을 통해 서부건축군의 정전, 편전, 침전영역의 경계로 연결되고, 동쪽으로는 수춘궁 영역으로 연결됨을 알 수 있다.⁵²⁾

서부건축군의 동선체계 역시 남북방향과 동서방향으로 나뉘는데, 남북방향의 동선을 살펴보면, 우선 침전영역인 L건물지(1건물지군)를 시작으로 편전영역인 5건물지군을 지나 축을 남서쪽으로 꺾어 F, E, D건물지까지 이어진다. 편전영역과 정전영역의 동선은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확실치는 않지만 편전영역의 남쪽 끝에서 다시 남서쪽으로 더 꺾어 정전 영역인 A건물지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N건물지(2건물지군)에서도 남쪽으로 M건물지(7건물지군), C건물지(9건물지군)으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되나 유적의 훼손이 심하여 확인이 불가능하다. R건물지(3건물지군)에서는 북쪽으로 O건물지 남쪽으로는 Q건물지(8건물지군)로 이어진다.

동서방향 동선은 침전영역인 I건물지를 시작으로 서쪽으로 N건물지(2건물지군), R건물지(3건물지군)를 지나 S건물지(내전터)까지 연결되는데, 특히 R건물지에서는 서회랑 북편과 남회랑 서편을 통해 S건물지와 이어진다. 대형 계단을 통해 남북방향으로 R건물지와 연결되는 Q건물지(8건물지군)에서는 서쪽으로 S건물지



[사진 6] 편전영역과 침전영역 사이에 위치한 대형 계단지와 문지(중심건축군 ↔ 서부건축군)



[사진 7] 정전영역과 편전영역 사이에 위치한 대형 계단지와 문지(중심건축군 ↔ 서부건축군)

52) 이는 신봉문과 창합문 사이 공간에서 중심건축군(창합문), 서부건축군(태초문), 수춘궁(춘덕문)으로 이어지는 남북방향과 동서방향의 동선이 교차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고려 분궐의 주요 동선은 중심건축군 중심축선상의 주요지점(영역이 구분되는)에서 남북과 동서방향으로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내전터)와, 동쪽으로 M 건물지(7 건물지군)과 연결된다. 중심건축군과 마찬가지로 서부건축군의 침전영역과 편전영역 사이에는 대형 계단과 연결되는 사다리꼴의 완충공간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남북방향과 동서방향을 동선이 교차한다.⁵³⁾

이상의 내용을 통해 중심건축군과 서부건축군은 남북중심축선상으로 연결되는 주동선체계와 동서 좌우로 갈라지는 부동선체계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중심건축군 좌우 측면에 조성된 계단시설(대형 계단 2개소 등)은 중심건축군과 서부건축군, 동부건축군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⁵⁴⁾ 더불어 정전-편전-침전영역 사이에는 동서방향으로 세장한 장방형의 사잇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 공간은 정전과 편전, 편전과 침전의 영역을 구분해 좁과 동시에 지형의 높이차를 조정하고, 궁궐의 남북중심축을 지형조건에 맞게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V. 맺음말

고려 본궐 만월대는 선학들의 연구로 서부건축군과 동부건축군, 구정영역, 금원영역, 동지 등으로 그 범위가 확장되었으며, 남북공동발굴조사를 통해 서부건축군의 실체가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선학들의 연구와 지금까지의 발굴조사 내용을 종합하여 추정배치도를 작도한 후 사료에 기록된 서부건축군의 주요 전각 위치와 고려 본궐의 배치체계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발굴조사 성과와 건물지 분석, 출토유물 등을 통해 보았을 때 고려 본궐의 전체영역과 배치체계는 현종 연간에 완성된 것으로 여겨지며, 이후 잦은 외침과 내란으로 고려왕조와 함께 고려 본궐도 점차 쇠락의 길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고려 본궐 종합배치 추정도」와 사료분석을 통해 보았을 때 서부건축군의 가장 중심 전각이자 제2정전인 건덕전의 위치는 정전이 갖는 위상과 지형조건, 제1정전인 회경전과의 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서부건축군 남쪽 A 건물지로 추정된다. 건덕전 북

53) 서부건축군의 정전(A 건물지)과 편전영역(C, D, E, F 건물지) 사이에도 중심건축군 대형 계단과 연결되는 완충공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54) 중심건축군과 서부건축군을 동서로 잇는 대형 계단지 2개소가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중심건축군 정전영역과 편전영역, 편전영역과 침전영역 사이에 중심건축군 서편 대축대와 직교방향으로 설치되었는데, 계단의 방향은 서부건축군의 주요영역으로 이어지고 있다. 각각의 대형 계단 최상단에서는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동서방향 문지가 자리잡고 있는데, 중심건축군과 서부건축군을 연결하는 관문역할을 한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15: 138~150 참조).

쪽으로는 편전 일곽의 중광전(C건물지), 장령전(F건물지), 침전 일곽의 영연전(I건물지), 자화전(L건물지), 청연각(J건물지)과 보문각(K건물지), 서부건축군 북서편에는 경령전(R건물지)과 내제석원(O건물지 또는 S건물지), 집희전(N건물지) 등이 위치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기존에 임천각터로 알려진 T건물지는 당시 상황과 여러 조건을 고려했을 때 선정전일 가능성이 있으며, 임천각은 회경전 서쪽 삼각형 부지(U건물지)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고려 본궐은 경사진 지형적 조건을 축대 축조와 계단을 통해 극복하면서도 지형에 순응하는 중심축선의 구성 등을 통해 권위와 격식에 걸맞는 궁궐 배치체계를 구현하였다. 특히 중심건축군과 서부건축군은 상호 밀접한 관계 속에서 정전-편전-침전으로 그 권역이 구분되면서도 남북방향과 동서방향으로 연결되는 유기적인 동선체계를 통해 두 영역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중심건축군과 서부건축군 사이에는 두 영역의 서비스기능과 완충공간 성격의 부속전각들이 배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삼전체제와 2원 구성의 배치체계는 동아시아에서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운 독특한 고려만의 궁궐 배치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초창부터 최성기까지 약 100여년에 걸친 점진적 조영과정과 창건 당시의 궁궐 영역인 서부건축군 배치체계의 존중, 주어진 대지 조건에 순응하려는 노력의 결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최성기(현종 연간) 고려 본궐의 전각위치와 배치체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한계도 분명히 존재한다.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각각의 건물지에 대한 편년과 중복유구의 해석에 있어서 미진한 점이 있으며, 선대유구의 추가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필자의 추론이 상당 부분 반영된 점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 제시한 「종합배치 추정도」와 주요 전각의 위치 추정은 하나의 ‘안’일 수밖에 없으며, 앞으로의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지속해서 수정·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 본 논문은 고려사학회에서 주최한 「개성만월대 남북공동 조사성과(고려도성 개경, 궁성 만월대)」 학술대회에 발표한 논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다(남창근 2019: 91~115).

투고일 2020. 4. 24 | 심사완료일 2020. 5. 29 | 게재확정일 2020. 6. 8

참고문헌

- 『高麗圖經』.
 『高麗史』.
 『高麗史節要』.
 『三國遺事』.
 고유섭, 1964, 『韓國建築美術史草稿』, 考古美術資料 第六輯, 考古美術同人會.
 _____, 2013, 『朝鮮建築美術史 草稿(우현 고유섭 전집 第6卷)』, 열화당.
 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開城 高麗宮城 試掘調査報告書』.
 _____, 2012, 『개성 고려궁성 남북공동 발굴조사보고서 I』.
 _____, 2015, 『개성 고려궁성 남북공동 발굴조사보고서 II』.
 김동욱, 1997, 「11, 12세기 고려 정궁의 건물구성과 배치」, 『건축역사연구』제6권 3호.
 김창현, 2002, 『고려 개경의 구조와 그 이념』, 신서원.
 남창근, 2012, 『고려 본궐 경령전 일곽의 성격과 건축유구를 통한 복원』, 청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_____, 2019, 「고려 본궐 배치체제와 주요전각 위치 재검토」,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조사성과(고려도성 개경, 궁성 만월대) 학술회의 논문집』, 고려사학회.
 리창연, 1999, 「만월대의 동지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루게 제112호, 사회과학출판부.
 박성진, 2012, 「고려궁성 서부건축군의 건물지군 배치관계 검토」, 『개성 고려궁성 남북공동 발굴조사보고서 I』
 박용운, 1996, 『고려시대 개경 연구』, 일지사.
 박지영, 2019, 「개성 만월대 출토 청자 유형과 특징」,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조사성과(고려도성 개경, 궁성 만월대) 학술회의 논문집』, 고려사학회.
 우성훈·이상해, 2006, 「고려정궁 내부 배치의 복원연구」, 『건축역사연구』 제15권 3호.
 이상준, 2009, 「개성 고려궁성(만월대)의 발굴성과와 과제」, 『한국중세사학회 제74회 연구발표회』, 한국중세사학회.
 _____, 2019, 「개성 고려궁성(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의 성과와 과제」, 『신라 왕경에서 고려 개경으로(월성과 만월대) 학술대회 논문집』,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林孝憲, 1832, 「高麗宮闕圖略」, 『松京廣攷』(서울대학교 규장각, 2000, 『경기도읍지(9)』).
 장상렬, 1988, 「고려왕궁-만월대 건축에 쓴 측도기준」, 『고고민속논문집(11)』,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前間恭作, 1963, 「開京宮殿簿」, 『朝鮮學報』제26집, 朝鮮學會.
 정찬영, 1989, 「만월대 유적에 대하여 I」, 『조선고고연구』루게 제70호, 사회과학출판부.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91, 『조선유적유물도감10(고려편1)』, 외국문종합출판사.
 조재모, 2003, 『조선시대 궁궐의 의례운영과 건축형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지성진·남창근, 2019, 「개성 고려궁성(만월대) 회경전 앞 대형계단 현황 및 축조기법」, 『한국건축역사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한국건축역사학회.
 한국겨레문화연구원, 『한국고전용어사전(<http://www.sejongkorea.or>)』.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http://encykorea.aks.ac.kr>)』.
 한인호, 1994, 「만월대중심건축군의 원덕전터 발굴보고」, 『조선고고연구』.
 홍영의, 2009, 「고려 궁궐내 경령전의 구조와 운용」, 『한국중세사학회 제74회연구발표회』.

Layout Characteristics and Re-examination of Location of Major Buildings in the Goryeo Bongwol

Nam, Chang-Keun (Research fellow, INTER-KOREA HISTORIAN ASSOCIATION)

This paper considers its layout system and location of the main buildings in the imperial palace of the Goryeo Dynasty (918–1392) based on the recent excavations on building group west of Manwoldae and previous studies on Manwoldae. Located in the Goryeo capital of Gaeseong, North Korea, Manwoldae is an imperial palace symbolizing Emperors and Dynasty of Goryeo. Although frequent disasters such as war, civil war, and fire, Manwoldae had faithfully served as the main palace of Goryeo (Goryeo bongwol) for more than 470 years from 919 through 1392, except when the capital of Goryeo was briefly on Ganghwa Island. North and South Korea have jointly conducted excavations of Manwoldae from 2007 to 2018.

The location of Geondeokjeon Hall, the second main Hall of the Goryeo imperial palace, is determined to be the building site A located to the southernmost part of the western building group of Manwoldae, considering topographical conditions and its status as the second main Hall. To the north of Gundeokjeon, it is believed that the area of Pyeonjeon Hall, emperor's everyday office space, and Chimjeon Hall, building for the emperor's rest, are located following the terrain. It is also believed that Gyeongryeongjeon Hall, where imperial ancestral rites were held, and Naejeseokwon, a Buddhist temple in the palace, were located in the vicinity of Geumwon. Meanwhile, it is possible that the building site T, known

so far as the Imcheongak Pavilion site, will be Seonjeongjeon Hall. Besides, Imcheongak is likely to be located at the building site U west of Hoegyeongjeon Hall.

Manwoldae implemented a layout system that conforms to the topography and, at the same time, conforms to its authority and formality as an imperial palace. In particular, the central building group and the western building group, which were divided into three zones of Jeongjeon-Pyonjeon-Chimjeon respectively, maintained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areas through a flow system connecting the north-south and east-west directions.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auxiliary buildings, which appeared to be service areas and buffer spaces, were located between the central building group and the western building group.

The two-way configuration of the three halls, consisting of Jeongjeon-Pyonjeon-Chimjeon, exhibits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Goryeo, which is hard to find in other palaces in East Asia. This composition and layout of the Goryeo imperial palace are regarded as a result of the gradual development process spanning about 100 years from the beginning of its foundation to its peak period, respect for the layout of the western building group, which was the palace area at the time of its founding, and efforts to adapt to the given topographical conditions.

Key words : main palace of Goryeo(Goryeo Bongwol), western building group of Manwoldae, layout system of Goryeo Imperial palace, double configuration of three palace halls, Geondeokjeon hall